

# 100돌 맞은 관음사 '제2 창건' 선언

## 광주 관음사 14일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

“창건 100주년입니다. 관음사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주지 소임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0여 년간 퇴색된 도량을 정비하고 신도조직을 새로이 만들어 제2의 창건이라 할 수 있도록 포교도량으로서 지역불교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의 대표적인 전법도량인 관음사가 11월 14일 창건 10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3월 주지로 취임한 소공 스님은 제2의 중흥기를 준비하는 말을 전했다.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열린 이날 기념법회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백양사 주지대행 광전 스님, 관음사 회주 원진 스님, 만덕사 주지 시각 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200여 명이 함께 자리를 함께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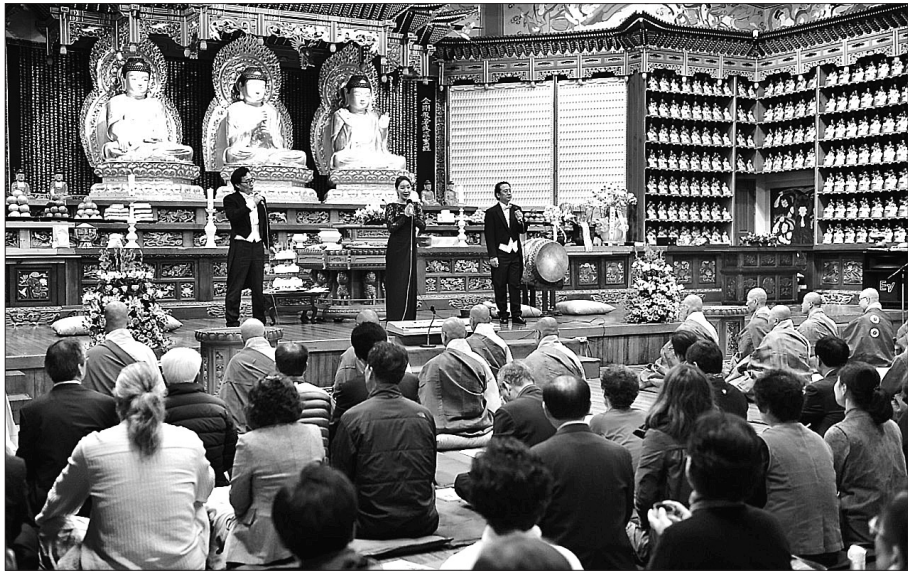
관음사는 지난 1916년 일본인 엔도신기 이 스님에 의해 창건된 후 광복과 함께 석파 스님이 입주해 장조 스님, 만암 스님, 봉하 스님 등 큰스님들이 주석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관음사는 1962년 상인 스님의 주지 취임을 계기로 전국 최초 불교유치원인 보문유치원을 개원하고, 호남최초의 불교학생회, 청년회, 관음사 신협 등을 개설해 호남지역 최고의 포교 중심도량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재

### 1990년대 이후 쇠락... 존폐위기까지 “도량 정비·신도조직 정비 등 통해 광주 지역 최고 포교도량 만들 것”

의 건물인 현대식 건물 불사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심 이전과 함께 사찰 존폐위기를 겪는 침체기를 맞기도 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법회는 1부 중창단과 성악가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찬불가와 육법공양, 관음사 연혁 소개, 장학금 전달과 감사패 증정, 축사, 발원문, 법문이 이어져 관음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11월 14일 봉행된 관음사 100주년 기념법회 축하공연.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관음사는 오랜 세월동안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전법도량이었다”며 “10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광주시민들의 문화도량, 힐링도량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음사는 현재 신도조직 구성과 함께 매일 다라니 독송회, 사경기도 등 기도정진 프로그램과 초심자 불교교실, 불교대학,

명상법회 등 평생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도량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후 7개월간 사찰 청소, 찬불(원불) 목록, 도량 정비하는 데 시간을 보낸 소공 스님은 “현재 관음사는 도량정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선포식이자 많은 분들의 뜻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대해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만발공양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의 어르신 식당인 ‘대해행복밥상’이 지난 11월 14일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대해행복밥상은 광주 동구 소재동 일대 주택가 땅 30평 땅을 구입해 작은 식당으로 꾸몄다. 전체 60석 규모의 이곳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누구나 1000원이면 한 끼의 맛있는 건강한 밥상을 먹을 수 있다.

무진 스님은 개관식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대해행복밥상을 개원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조미료 등이 없는 건강한 집밥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관 의미를 설명했다.

개관에 이어 대해행복밥상의 옆에 있는 대해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역 관내 소태동, 학동, 학운동, 남구 방림동에 거주 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실시했다.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동참한 이날 만발공양은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레크레이션, 개관식, 개관커팅식, 만발공양, 문화공연(아이예 슈단, 가수) 등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불교 만들겠다”

### 광주불교聯, 13일 회장 연광 스님 연임 결의

광주불교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중심사 주지 연광 스님(사진)이 광주불교연합회 제2대 회장에 연임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13일 제3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체 회원사찰 75곳 가운데 선거유권사찰 53곳 사찰 중 43개(참석 32, 서면투임 10) 사찰 대표가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2대 회장 당선을 결의했다. 총회는 이어 수석부회장에 보은 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진 스님(연화사 주지), 감사에 원목 스님(선덕사 주지),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을 선출했다.

연광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승가의 화합이 최고의 포교다. 화합을 통해 광주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광주불교가 많은 대중들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교인구가 늘어났다는 꺾임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앞으로 전통불교문화의 보급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불교 대표단체로 나



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제2대 회장단 선거 외에도 정관일부 개정, 선거관리규정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제정했다.

1년간 광주지역 활동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광주불교연합회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은 스님과 2014·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준비를 한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봉사부문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 광주불교산우회(회장 오정의), 박준희 조선대 교수, 최현기(전통등 전시회)·문규자 불자 등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2015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기구현황, 연간사업, 부설기관 운영현황, 발

행장지, 대외협력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을 결의했다.

2015활동보고서에는 연합행사인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성도제일 연합법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부설기관인 빛고을 나눔나무의 ‘네팔지진돕기 9200만원 지원, 불교실무자를 위한 불교모언어카데미, 자비나눔기금 전달, 쌀·연탄 나누기’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담았다. 특히 올해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활동과 단체 홈페이지·로고 제작, 봉축공모사업, 전통등(燈) 만들기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행사는 로터스합창단의 축하공연과 1년간 광주불교연합회의 활동을 영상으로 담은 연례보고, 불교의례, 시상식, 인사발,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2016년 행사와 관련해 “11월 중순부터 내년도 봉축행사 준비를 위한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독거노인 겨울 연탄지원사업과 2016년 봉축공모사업, 성도제일(제2대 회장 취임식, 신도회장 취임식)법회 등 상반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심없는 기도 정진...환희 넘치는 도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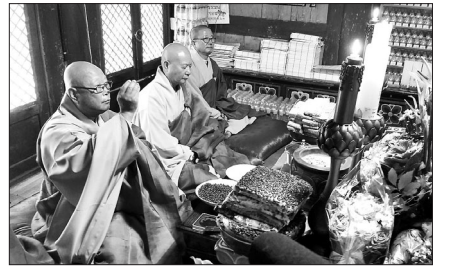
### 선운사 도솔암, 15일 지장보살 개금불사 회향

우리나라 3대 지장기도 성지 중 한 곳인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정안법회를 봉행했다.

도솔암(갑원 도암)은 11월 15일 도솔천 내원궁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금불사를 회향한 선운사 도솔암 도솔천내원궁 지장보살상은 육도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로써 보주·석장·법륜 등의 지물을 들고 있는 지장보살의 일반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 고려후기 불상이다. 우아하고 세련된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완 스님은 “사부대중의 원력과 관심



으로 지장보살 개금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됐다”며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불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기도정진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회향법회 후에는 극락보전에서 1029일 영가천도제가 봉행됐다.

도솔암 마애불과 함께 우리나라 미륵·지장기도 성지인 도솔암은 1년 365일 기도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기도도량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마이산 탐사 분원들 자비나눔 릴레이 눈길

### 월천사 연탄나눔·전주 실상사 자비의 쌀 기탁

마이산 탐사 분원들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분원 월천사(주지 보름)는 11월 16일 월천사 나누리 봉사단을 창단하고 신도회, 음악퓨전그룹 ‘The 놀자’ 등과 함께 4080 릴레이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가뭄을 해소하는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자비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인천시 남구청이 추천한 용현동 13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 408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편, 전주분원 실상사(회주 진성 교임



강순덕)는 11월 13일 전주시 진북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경로당과 복지사가 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10kg 쌀 100포대를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순창 종교인 협의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 3천포기 김장김치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북 순창종교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펼쳤다.

불교·천주교·원불교·통일교·유교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순창 종교인협의회의 회장 청암 스님, 장덕사 주지는 11월 18일 순창 자원봉사의 집에서 이웃돕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청암 스님을 비롯해 일광사 선동 스님, 송학사 지명 스님, 원불교 문정현 교무, 천주교 한기호 신부, 통일교 강경우 목사, 유교 강병문 전교 등 종교인들과 순창군의 회 이기자 의장 등은 16일부터 3일간 3천포기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순창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300여 명이 동원돼 마련한 김장김치는 순창관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410가구에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 우리불교 曹溪宗

## 입·중·안내

###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중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